



지난 23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아시아 10cm, 더'에 출연한 다문화 가족들이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통악기 배우며 한국과 더 가까워졌어요”

화관무, 가야금과 해금 연주, 태권무...

조금은 어설픈 동작과 연주지만 무대에 선 이들이나 객석에 앉은 이들이나 모두 행복한 공연이었다. 이날 무대에 선 이들은 중국·태국·필리핀 등 다문화 가족들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몇 개월 동안 연습해 온 것을 선보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진행하는 '아시아 10cm, 더, 어머니와 함께하는 전통 악기' 행사가 지난 23일 오후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곳은 (사)해뜨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센터장 정선순)다. 지난 200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후 다문화 가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센터는 무엇보다 이주 여성들과 한국을 이어주는 끈으로 '한국의 전통악기'를 선택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30 가족이 가

전문화도시추진단 '아시아 10cm, 더' 행사

다문화가족 “어설피지만 행복했던 무대” 즐거워

‘엄마의 나라’ 춤·노래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

아금, 해금 등을 배우고 있다.

첫무대를 장식한 것은 흥겨운 난타. 이어 전통춤 화관무가 이어졌고 해금과 가야금·오카리나 연주가 뒤를 이었다.

‘엄마의 나라’의 춤과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태국 전통 노래 ‘뽀마이 경퍼’(아버지의 나무)와 전통춤 리아그라프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난타 공연과 필리핀 노래 부르기에 참여한 민다(41·광주시 서구 월산동)씨는 올해로 한국에 온 지 13년째. 민다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아들과 함께 센터를 찾아 악기를 배우는 게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원스레 북을 두드리고 나면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간다”며 웃었다. 민다씨의 아들로 동생과 함께 이날 공연에 참여한 염지원(13·월산초 6년)군은 “난타와 태권무를 배우는데 확고 공부가 지친 마음을 풀 수 있어 재미있다”며 “센터에서 친구도 사귀고 즐겁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우리 악기와 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말도 익히고 낯선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악기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악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10cm, 더’는 앞으로 세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는 문화전당 공사 현장 앞 광장에서 ‘어느 멋진 토요일 밤 The 멋진 음악회’(매월 넷째주 월요일)가 열렸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꽃게 잡이 플로츠’ 김달오씨 등이 출연, 감동을 선사했다.

아시아문화마루는 시민들과 친숙해지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청춘의 자격’, 우리 동네 문화행사 ‘야(夜) 버섯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매월 격주 화요일)도 진행중이다.

http://cafe.naver.com/asiaculturemaroo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연극제, 경남 ‘선녀씨 이야기’ 5관왕

한국연극회가 주최하는 제 30회 전국연극제가 23일 광주 문예회관에서 폐막식을 갖고 막을 내렸다.

전국 15개 시도 대표들이 경연에 나선 이번 연극제 영예의 대통령상(상금 2000만원)은 경남 대표인 극단 ‘예도’의 ‘선녀씨 이야기’가 차지했다. ‘선녀씨 이야기’는 연출상과 희곡상(이상우), 최우수여자연기상(고현주), 연기상(강진홍)까지 받으며 5관왕에 올랐다.

금상(상금 1000만원)을 받은 극단 ‘양상발’의 ‘불나고 바람 불고’는 무대예술상(민병구)까지 함께 수상했으며 광주 대표 극단 ‘까치날’은 은상(상금 600만원)과 연기상(윤미란)을 받았다. 그밖의 은상 수상팀은 극단 ‘홍성무대’의 ‘아리랑’, 극단 ‘무’의 ‘엑스트라 하우스’, 극단 도모의 ‘과꽃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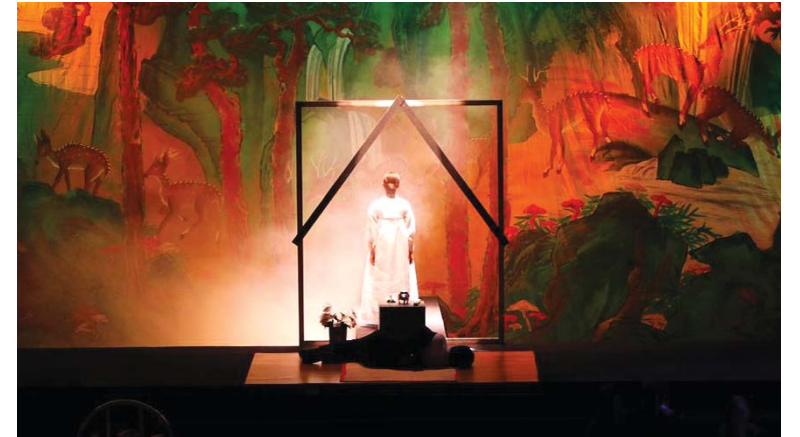
‘있다! 있다!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전국연극제는 광주에서 16년만에 다시 열린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0년 열렸던 전국무용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축제는 광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대상 수상작 ‘선녀씨 이야기’는 객석에서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불나고 바람나고’는 극의 중심 역할을 한 노스님이 던져주는 ‘화두’들이



윤미란



전국연극제에서 5관왕에 오른 경남 극단 ‘예도’의 ‘선녀씨 이야기’ 한 장면.

광주극단 ‘까치날’ 은상·윤미란 연기상 수상

16년만에 광주서... 시민에 다양한 작품 선사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또 대구 극단 ‘처용’의 ‘해무’는 탄탄한극본과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배우들의 연기가 눈길을 끌었으며 초창작이었던 러시아 하바롭스키 청년문화예술극장의 ‘헤다 가블러’는 심플한 무대와 소품 등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연극제의 예산은 모두 5억 7000만원. 지난해 행사를 치렀던 원주의 9억원과 내년에 연극제를 진행하는 충남 홍성의 11억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였다.

연극제 기간동안 진행된 35회 공연에 다녀간 관객은 약 1만 8000여명. 이 중에는 모든 작품을 다 섭렵한 열성 관객들도 눈에 띄었으며 학생관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특히 연극제가 ‘경연’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최측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관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극제의 관람 태도(특히 심사 대상이었던 오후 7시30분 공연)는 일부 공연을 제외하고는 합격점을 받을만 했다.

특히 극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무대 인사 때 배우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타 지역 연극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7개면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의 부대행사 가운데는 광주문예회관 분수대 자리에 보리밭과 나무데크로 멋진 공간을 만들고 진행한 ‘놀았으면’이 연극제를 찾는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초청공연이 진행됐던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의 경우 낡은 냉방 시설 때문에 대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지역 문화 인프라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줘 아쉬움을 남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고향의 추억... 흠내음 물씬

박주하 개인전, 내달 17일까지 로터스 갤러리



‘그리운 날’

전통색인 오방색 때문일까. 작품 속 시골 풍경은 한층 정겹다. ‘현대화’ 물결 속에 사라져가는 시골 고향에 대한 넋덕함과 따뜻한 남도 정서가 가득하다.

서양화가 박주하씨가 다음달 17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여는 초대전은, 도시에서 말할 수 없는 흠내음이 가득한 전시다.

지난 1990년 이후 16번째 개인전

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 30점으로 채워진다.

고향 시골길을 걸으며 만난 풍경이 오방색으로 펼쳐지면서 세련미를 엿볼 수 있는가 하면, 장승, 용 등을 활용해 전통 신앙을 형상화한 작품들도 선을 보인다.

‘해질녘’, ‘외갓집 가는 길’ 등의 작품에서는 도시인들이 잊고 사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강

렬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고 ‘귀소’, ‘봄빛 그리운 날’, ‘그리운 날’ 등에는 넉넉한 고향 풍경이 가득하다. 총층이 쌓아올린 듯한 채색 기법은 투박한 듯 하면서도 한국적인 질감이 묻어났다. 문의 062-383-007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도 비엔날레 작가:마실’전 참여 25개팀 확정

오는 제 9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시민들의 다양한 느낌과 이야기들이 도심 곳곳에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4일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일) 시민참여프로그램인 ‘나도 비엔날레 작가:마실’전에 참여할 25개 팀을 확정, 발표했다.

‘나도 비엔날레...’는 시민들의 다양

한 삶과 문화,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젝트로, 일반인이 작가로 직접 기획해 작품을 창작하거나 전시를 여는 행사로 이뤄진다.

복잡하고 난해한 현대 미술의 이해를 돕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일반인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참여가 확정된 팀은 비엔날레 기간 도심 곳곳을 전시 공간으로

삼아 꽃꽂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참가가 확정된 25개 팀은 ▲광주 에코바이크 ▲아트즈 ▲경종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우재길미술관 ▲디지로그 ▲은빛다카동호회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우리문화예술원 ▲국제교류센터 ▲성덕고등학교 ▲수안고등학교 ▲더불어樂 등

이다.

전남여성 학생들의 경우 학교 유휴 부지를 그들만의 시각을 담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아트즈의 경우 양림동의 한 주택을 전시장소로 선택, 주민들과 추억의 사진전을 선보인다. 청소년 카페 인디고는 지역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주말 공연 및 ‘폼지락’ 작품을 열게 된다.

비엔날레는 선정된 25개의 전시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 이내의 작품 제작·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30주년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